



깨닫고 그 이름을 벤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동쪽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있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그 위치와 유사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느니라 하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뒷부분에서 여러분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 관계를 가졌는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오경과 오경 전체의 빛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이자 이름도 이스라엘인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도 그들의 사랑받는 지도자인 모세와 똑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경우에는 야곱이 자신을 인간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12장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천사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장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 사람, 세 명의 방문자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나타내신 세 분 중 한 분은 야훼, 즉 주 하나님 자신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두 천사로 식별되는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과 이번 사건은 그런 유사점이 있지만 내 생명은 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33장에 나오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얼굴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처음 만난 후 10절, 33:10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오, 야곱이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거든 나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받으소서.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두 장을 함께 읽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야곱이 에서와 마주할 수 있고, 에서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 즉 이 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곱에게는요.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서 에서의 호의를 얻었고 야곱의 용납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투쟁이라는 주제가 특히 그의 집안의 라반과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에서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경우를 라반에게가 아니라 에서에게로 계속하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야곱이 겪는 가장 심오한 투쟁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과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적 개인적인 어려움,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2장과 33장의 결과,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를 만난 결과, 그가 20년 전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서의 그 꿈은 그의 영적 순례의 시작이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때때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더욱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조작하고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생존이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는 회개해야 하며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그의 이름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침입자, 대적자,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적수, 인간, 하나님 자신과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변경의 의미는 그 사람 자신의 변화에 담긴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레베카의 태 속에 있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아이디어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침입자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가 투쟁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투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그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글썄, 이 두 장에 관해서는 저자가 매우 예술적으로 썼고 말장난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방금 브니엘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의 말장난을 보았습니다.

암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28장과 같은 이전 장에 대한 암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32장, 하나님과의 씨름에는 사자에 대한 모티브, 즉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천사도 메신저로 간주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12절의 시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사자들이라 이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영을 외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영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자기 백성과 양 떼를 나누는 방식에 반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7절에서 선택합니다. 야곱은 큰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그룹으로 읽혀지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의 진영이며 양떼와 소떼와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에서가 와서 한 진영을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천적, 영적, 지상적, 즉 에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간 경험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그의 형 에서의 종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할 말은 이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4절에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명하여 너희가 내 주인 에서에게 이 말을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종 야곱의 인용문입니다. 이 언어가 왜 중요한가요? 나의 주인, 당신의 종.

야곱이 에서와 대결하려는 방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6절에서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너희를 맞으러 온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에게 무장한 군사가 400명임을 안다. 이것이 바로 큰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일곱으로 읽는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그의 동물을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동물 그룹 사이에 거리를 두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반복되는 선물의 물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무리들, 이 동물들을 에서에게 선물하기 위해 각자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그가 다시 에서를 부드럽게 하고, 에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에서를 조종하고, 에서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려고 자신의 방식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이 전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왕처럼 큰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나아갈 때에는 왕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학대하고 에서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방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혼란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회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그것이 어떻게 라반의 집안에 그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고난, 그리고 그의 두 아내 사이의 투쟁과 경쟁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야곱에 관해서 취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가 나의 주인,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17절에서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선두에 있는 자, 즉 첫 번째 무리의 소 떼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이 모든 동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주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 일은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도 계속됩니다.

5절에서 야곱은 에서가 “너와 함께 오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고 대답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 33장 5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에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의 종을 은혜롭게 주신 것을 봅니다. 에서 역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일의 결과로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은사를 근거로 한 에서의 반응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 33절 9절을 보면 야곱이 동물을 하나씩, 이 모든 동물 떼를 선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것을 나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형님. 아시다시피, 친족 관계는 에서가 인생의 후반기에 인식한 충성의 유대입니다.

그리고는 네 소유를 야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뒤인 33장에서 우리는 12절에서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400명의 부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것이 친족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도록 하세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의 주 나의 주여”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서, 나의 주님. 그래서 저는 이것이 32장과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언어를 주로 속이고 조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방식으로 돌아다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에서를 속였는지 , 어떻게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지를 인식하고 이제 32장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사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32장 1절부터 12절. 나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침입자와 씨름하기 전에도 9절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는 약속의 메아리요 유산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속의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신이나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고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환경에 자신을 솔직하고 확고하게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고전이 된 삼중 언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 여호와여, 오, 주님,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31장 3절의 메아리입니다. 거기서 그가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유산의 매우 중요한 연결인 친족관계를 빼놓고 싶지 않으며, 나는 당신을 번영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에게 보여 주신 계약의 충실함, 즉 당신의 자비와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그룹이 되었습니다. 구하노니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만일 그가 단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아내들도 포함했을까요? 그는 아이들을 포함했을까요? 그는 상속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자리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12절을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을 번영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 보면 그 후손을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1절까지에 일련의 선물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가 거기서 밤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밝히게 될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는 요르단의 모든 진영과 함께 동쪽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와 함께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단어는 18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은사의 의미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소리에 대한 반향, 즉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절에는 캠프라는 단어의 이중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메하나임, 두 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멘하(menhah)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유사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선택한 단어가 멘하(menhah)라면, 멘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오경 예배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이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물이요 제물입니다. 이제 그것은 신성한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속적이지만 아마도 메하나임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형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이 계획을 감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동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절에서 나보다 먼저 가서 무리들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읽었는데, 이것이 무리의 우두머리들 각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질문이 제기되면 이 동물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방식으로 무리를 몰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멘하이며 내 주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요 그가 우리 뒤에 오고 있느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19절에서 둘째 떼와 셋째 떼와 양 떼를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그에게 말하고 너는 주의 종 야곱이라 하라 하였느니라 오는.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보내는 이 선물로 그를 화목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아마 그 사람도 나를 받아들일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예물은 앞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 자신은 진영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나중에 그가 자신이 오기 전에 가족을 먼저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진에서 밤을 보냈는데, 진정시키라는 말은 속죄할 때 사용하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세속적입니다. 속죄는 성소와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를 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1분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화해입니다.

나는 이러한 선물로 그와 화해할 것이며, 그는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3장에서 그가 에서의 은혜를 구하는 데 사용된 종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호의라는 단어가 사람의 눈에 호의를 베푸는 표현과 함께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3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무리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주님, 당신  
눈에 은총을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호의를 찾으려면 이 호의라는 단어는 은혜에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받아들여지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 그리  
고 실제로 그런 일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32절까지의 축복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는 22절에서 그의 가족을 압복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흐르는 강이다.

서쪽으로 흘러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와디강 입니다. 그것은 동쪽이고 서쪽으로  
흘러 사해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요르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말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야곱을 뜻하는 단어와 압복을 뜻하는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압복, 압복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24절에 씨름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습니다.

wrestle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yabak , yabak .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사건과 그 성격, 그 위치를 강조하기 위한 말장난일 수 있다. 25절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이제 이 단어 터치는 타격 또는 타격이라는 개념으로 렌더링될 수 있습니다.  
가벼울 수도 있고, 더 공격적일 수도 있고,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일은 단지 만지기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환도뼈를 꺾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그 남자와  
씨름을 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 이 투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승리했는가? 그리고 호세아  
기자는 이 씨름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으나 야곱을 이기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리된 영덩이 때문에 확실히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이 씨름 시합에서 그 남자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보세요,  
야곱은 그가 구한 것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축복을 받을 때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축복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을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모호함, 이 신비, 이 명확성의 부재, 그분의 실제 존재를 본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짐을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교류하시고, 만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계시와 만남,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족장들과 독자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과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찾고 싶어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 그분의 인격은 동등하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당신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아닙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 족장과 하나님 사이에는 일종의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감춰진 것, 신비,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또한 감춰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나는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있던 모세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이끌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에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날이 새니 나를 가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단속하시는 하나님의 숨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과 야곱의 신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성요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보다는 26절을 읽어야겠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꽤 충격적인 것 같지 않나요? 이름이 있으면 통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통제하고 있나요? 무엇이 위태로워요? 그들은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통해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처럼, 사례와 사라처럼 이제 우리는 야곱과 미래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합한 이름 변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 야곱의 경험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야곱 집안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와의 언약에 연합하여 믿음의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모든 자,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이름을 알려주세요. 다시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 그런데 그 남자는 내 이름을 왜 묻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곳에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태양이 그의 머리 위로 떠올랐고, 일광도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브누엘을 지나자 지금 성경에서는 그 번역판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같은 단어를 제공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추가적인 형태입니다. 프니엘의 변형 형태입니다.

바로 브누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니라.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번역에는 같은 장소인 브누엘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뚝거리며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온 것이 하나의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느님과 만남으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환도뼈 뼈가 힘줄 근처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음식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고, 그들은 영적 조상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조상과 국가적 조상을 상기시키기 위해 힘줄을 먹지 않는 이러한 준수를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압도적인 영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제 회복된 은사가 나오는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에서에게서 빼앗긴 선물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약혼,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는 축복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있고, 돌아오고 있으며,

에서에게 '내가 이것을 네게서 훔친 것을 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야곱이 계속 자기 길을 가며 세겜에 임시 거처를 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났습니다. 정말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몰랐다면, 이전에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이전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조된 긴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는 이 전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취약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노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도 살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에서는 빼앗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선택한 것은 그의 가족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나누어 어머니와 어머니의 종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입니다.

그는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입니다. 이제 이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의 총애받는 아내 라헬이 요셉이라는 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총애한 라헬의 아들만큼 요셉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라헬에게서 벤자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것들을 뒤쪽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헛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공격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흩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라헬과 요셉, 아니면 아마도 요셉 자신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다가가면서 일곱 번 땅에 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가 전진하는 동안 참았고, 그 후 가족을 나누고, 바라건대 형과 화해하기 위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번이나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곱 번은 겸손을 완전히 표현하고 형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받아들이는 것, 겸손의 몸짓, 충성의 몸짓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러하듯이 형제애의 행위, 회개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행위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에서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4절, 그런데 에서는 도망갔습니다. 이제 에서가 달렸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동생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는 마치 못해 선물을 받거나 그런 종류의 것을받지 않았습니다 . 그는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형제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에서와 야곱과 함께 일하셨고 두 사람 모두 형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왔으며, 두 사람이 이곳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를 포옹합니다. 그는 그의 목에 팔을 얹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그들은 형제애를 나누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해야 합니다. 야곱아,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을 모두 보세요.

그리고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기 5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인과 어머니가 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존경의 행위로서 야곱의 패튼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모두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는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에서가 “나는 이미 넉넉하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36장에서 이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그의 후손들과 그로부터 어떻게 족장들과 다양한 종족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해되자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장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야곱이 그 수준에 있지 않았다면 확실히 화해 이후로 위협은 끝났고 에서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조종당하고 교활한 사기꾼이자 악당이었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에서가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가 주장했고 에서는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를 보호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에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습니까? 글썄요, 아마도 당신이 나와 동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이 그의 입장에서 현명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전사들에게 요구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린 여우와 떼, 어린 새끼들이 먹이를 먹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결국 그는 에서가 있는 에돔 지방 세일산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로 하여금 내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과 동행할 남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 몇 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숙곳이라는 곳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숙곳은 초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광야 방향을 위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을 위해 이런 피난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북쪽, 동쪽이 될 것이며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후 가나안 세겜 성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34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역시 히위 족속인 현자인 세겜 족속과 신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겜 족속의 방백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리적으로 두 진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에서가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Jacob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에 있어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34장과의 연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신(God), 엘(EI) 신에게 사용되는 총칭. 그러나 이제 엘의 동일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백성, 장차 올 큰 나라, 애굽으로부터의 구속 곧 큰 유월절을 통해 형성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언약 관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식별하게 될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요 인물, 믿음의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즉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 형들과의 만남, 그들이 애굽에 와서 수십 년 전에 팔아넘긴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는 스스로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경우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진행되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9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를 만나다입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